

# 세계도시

2006. 11. 6 제154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일본 미에(三重)縣의 성과감사

### 도시경영·경제

1.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경 시티 세일즈' 개최 (동경)
2. 지역 기술 인재 육성으로 도시경제 활성화 기대 (런던)
3.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생활지침서 배포 (런던)
4. 10만 개의 친환경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영국)
5. 시장화 테스트 시범사업 실시 (동경)
6. 'CBO 오사카' 확대 실시 (오사카府)
7. 재정적자가 심각한 지자체를 위한 '재생형 과탄법제' 발표 (일본)
8. 2006년 상해 투자가이드 지도 배포 (상해)

### 디지털 도시

9. 주택공급 관리 솔루션 도입 (영국 더럼市)

### 복지·문화

10. 유럽 최대 청소년 박람회 'YOU Berlin 2006' 개최 (베를린)
11. 문화 관련 조직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런던)
12. 청년실업자 지원사업 민간위탁 (일본 나라縣)

### 도시환경

13. 폐식용유를 이용한 시내버스 운영 (교토)
14. 에너지 절약 심사제도 실시 (북경)

### 도시교통

15. 오토바이의 버스전용차로 주행 단속 강화 (시드니)

### 도시계획·건설·주택

16. 비만문제를 도시 및 건축 설계로 해결 (영국)
17. 이케부쿠로역(驛) 주변건물 외벽 색 규제 (동경)
18. 장애물 없는 계획 및 건설 (베를린)
19. 친환경주택 건설의 필요성 주장 (영국)
20. 보행공간 조성을 위한 거리환경 디자인 지침 단일화 (런던)

### 방재·안전

21. 재해에 대비 빗물을 지하에 저수 (동경都 스미다區)

## 벤치마킹 사례

### 일본 미에(三重)縣의 성과감사

#### <주요 내용>

일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조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都道府縣과 市町村)의 역할도 수평적으로 크게 바뀌었다. 시민의 가치관도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회경제 추세 변화에 부응해 주민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즉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2006년 지금 현재 감사에 필요한 것’ 토론회 전경

이런 추세를 반영해, 일본 최초로 평가방식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곳이 미에(三重)縣의 감사위원회다. 이 성과감사는 미에縣의 13개 주요 시책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5단계에 의한 정량방식으로 2002년에 실시됐고, 2003년에는 2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성과감사 결과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표됐다. 縣의 사업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급정보를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기여했다.

미에縣의 성과감사는 27개 시책에 대한 3E(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세금에 대한 가치(Value For Money), Best Value<sup>1)</sup>의 관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미에縣의 정책체계는 ‘기본방향-정책-시책-기본사업-사무사업’으로 구성되는데<sup>2)</sup>, 시책과 기본사업, 사무사업에 대해 제3자 평가로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 시책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교육 충실, 시민활동 추진, 방재대책 추진, 생활보장 확보, 대기환경 보전, 기술고도화 촉진, 여유 있는 주거 만들기 등이다.

성과감사의 착안점은 환경변화 인식, 사업 실적, 행정활동에 관한 것을 주된 축으로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변화 인식에서는 환경변화에 맞게 사업전개를 하고 있는가, 파트너십의 역할을 정립해서 집행하는가,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둘째, 사업 실적에서는 성과지표와 사업내용으로 크게 나누고, 지표가 종합계획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게 설정됐는가, 수치목표가 달성됐는가(혹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우수한가), 하위사업은 상위사업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그리고 사업내용에서는 비용에 부합한 가치창출을 하고 있는가, 현민(縣民)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사업집행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

1) 미에縣에서는 Best Value에 대해 서비스의 질과 개선가능성의 평가로 이해하고 있음.

2) 미에縣에는 5개의 기본방향과 20개의 정책, 73개의 시책, 266개의 기본사업 등이 있다.

사한다. 셋째, 행정활동에 관한 평가로서는 관련기관과 협동하고 있는가, 실적비교를 통해 업무개선  
에 노력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해설 및 평가>

미에縣의 성과감사는 도청의 본국(서울市的 경우 경영기획실에 해당)에서 수행해서는 사업평가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립된 조직인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성과감사의 효과는 지방정부 단체장의 리더십과 열정, 의지와 관련돼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  
찬가지로 감사사무국 직원이 都나 市 직원에 의한 이동근무를 하므로,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다. 미에縣의 경우, 평가 개념을 도입한 성과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객관적 성과감사를 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감사가 가능했다.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市的 경우 평가 개념을 도입한 성과감사는 현재의 조직구조에서는 쉽지 않다. 감사관실의 감  
사들이 서울시 본청의 다른 부서에서 와서 담당업무를 담당한 뒤 나중에 해당 실·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엄밀한 감사가 쉽지 않다. 또한 성과주의나 고객 중심적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법·제도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성과감사 결과와 성과평가나 성과관리상의 표상이 다를 경우 어느 쪽을 더 권위 있는 정보로 볼  
것이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감사가 감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하는 실·국보  
다 더 상위의 위상을 가지거나 일본처럼 독립된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 시민 중심적 감사가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벤치마킹 시행방안>

일본의 감사관련 조직구조는 영미계의 감사 시스템과는 다르지만, 한국과 유사하거나, 혹은 일부  
영미계의 감사조직구조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벤치마킹 사례가 된다. 즉,  
법제도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문화적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감사조직을 위원회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령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입장에서 입  
법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 시대가 아니고 지방분권 시대에는 합리적인 지방정부 운영  
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벤치마킹 기대효과>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없이는 성과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단체장  
의 리더십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성과주의 감사가 가능하다. 첫 단계에서는 미에  
縣과 같이 감사를 위한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과 경영기  
획실의 예산편성 과정과 연계된 성과주의 예산감사가 필요하다. 예산은 세수에 대한 가치(Value For  
Money)를 달성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확립하도록 사용돼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성과  
를 향상시킬 것이다.

/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chandong99@sdi.re.kr)

### 1.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경 시티 세일즈' 개최 (동경)

동경都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와 뉴욕에서 '동경 시티 세일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동경의 매력을 홍보하고 동경 마라톤과 자매도시 교류 사업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뉴욕에는 동경 관광사무소를 설치한다.

'동경 시티 세일즈'의 주된 내용은 관광상담회와 세미나다. 동경都는 여행, 숙박, 항공, 운수 등 관광관련 민간사업자 21개 회사와 2개 단체와 함께 현지에서 동경 관련 여행상품 조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세미나를 통해 현지 여행사업자에게 동경의 매력적인 관광 정보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전통문화, 역사,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0/20gad3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최근 서울시는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개발뿐 아니라, 동경都의 사례와 같은 공격적인 도시마케팅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동경 시티 세일즈가 마케팅 대상을 차별화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매스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해 외국의 잠재적 관광객들이 서울을 친숙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도시마케팅 전략이라면, 이차적 전략은 관광관련 사업자들에게 서울관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양질의 여행상품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마케팅 전략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서울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백선혜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 2. 지역 기술 인재 육성으로 도시경제 활성화 기대 (런던)

런던개발청은 런던 퀸메리대학(Queen Mary's University)의 의과대학 캠퍼스에 49만 7000파운드(약 8억 9000만 원)를 투자해 생명과학교육센터(Bioscience Education Centre)를 건설 중이다. 런던시는 2010년에 런던의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현재의 38%에서 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집중적인 재개발 대상지역인 런던 동부 화이트체펠에 생명과학센터를 유치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런던개발청은 같은 캠퍼스에 2008년 문을 열 혁신센터에도 500만 파운드(약 90억 원)를 투자했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529)

### 3.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생활지침서 배포 (런던)

런던시는 2006년 10월에 입학하는 런던 시내 대학 새내기 4만여 명을 대상으로 런던의 환경을 살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지침서를 무료로 배포했다. 런던시와 지하철 무료배포 종합일간지인 '메트로'가 공동 제작한 생활지침서 '녹색 메트로'는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기숙사 및 숙소에 대한 정보와 숙소 근처 재활용 수거시설, 에너지 및 물 등의 간단한 자원절약 방법,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런던 시내 자연생태공원과 녹지 정보 등도 담고 있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368)

#### 4. 10만 개의 친환경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영국)

영국 노동당 정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 그린 테크놀로지 관련 분야에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린 테크놀로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고 정부의 환경기금(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을 통한 재정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의 경제학’(Economics of Climate Change)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Planning, 2006. 9. 27)

#### 5. 시장화 테스트 시범사업 실시 (동경)

동경都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도립 기술전문학교를 대상으로 관민(官民)이 경쟁하는 동경판 시장화 테스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전문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실시 가능한 과목을 대상으로 했다.

입찰방법은 종합평가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이며, 대상 과목별로 민간사업자와 동경都 해당 부서(산업노동국 고용취업부 및 각 기술전문학교)의 제안내용을 비교해 질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자를 선정하게 된다.

과목명	기술전문학교(1회 모집 정원)	실시기간
비즈니스 경리과	고령자 기술전문학교(30)	2007년 4월 1일~2008년 3월 31일(1년간, 6개월 훈련×2회)
의료 사무과	이다바시 기술전문학교(30), 하치오지 기술전문학교(40)	
네트워크 구축과	이다바시 기술전문학교, 아리아케 분교(30)	
무역 실무과	이다바시 기술전문학교, 아리아케 분교(30)	
경영관리 실무과	고령자 기술전문학교(30), 후추 기술전문학교(30)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0/20gag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0/20gag400.htm))

#### 6. ‘CBO 오사카’ 확대 실시 (오사카府)

오사카府는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 신전략을 근거로 물적 담보나 제3자 보증 없는 다양한 자금공급시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성장성 평가 용자’나 신속한 용자심사에 의한 ‘포트폴리오형 용자’, 증권화 방법을 활용한 ‘CLO 용자’ 등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府는 금융 신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에 실시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한 ‘광역 CBO’를 2006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CBO(사채담보증권)란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모아 증권화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물적, 인적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적인 연대를 하게 됨으로써 많은 기업이 참가할 수 있어 증권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산하고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www.pref.osaka.jp/fumin/html/10902.html)

## 7. 재정적자가 심각한 지자체를 위한 '재생형 파탄법제' 발표 (일본)

일본 총무성의 '새로운 지방재정 재생제도 연구회'는 2006년 9월, 재정적자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생형 파탄법제'를 내놓았다. 이 제도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 시정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관여 아래 재생 절차에 들어가는 2단계 시스템이다. 공기업의 실질적인 채무에 관한 지표를 정비해 자금유통 지표와 합해 재정 건전도를 엄격하게 측정하게 된다. '재생형 파탄법제'는 현행 재정재건 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재건 법제다. 총무성은 이 제도를 구체화해 3년 이내에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표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기 시정 단계에 들어가 세출 삭감과 세입 확보책 등을 나타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주민에게 공표하고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보고해야 한다. 지표가 한층 더 악화돼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재생 단계로 이행해 재생계획 수립이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관여한다. 재건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조치 등도 검토하도록 돼 있다.

([www.yomiuri.co.jp/politics/news/20060925ia02.htm](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60925ia02.htm))

## 8. 2006년 상해 투자가이드 지도 배포 (상해)

상해市 외자유치위원회는 市 중심가 및 주요 상권의 위치와 대표적인 건물, 지하철, 고가도로, 간선도로와 같은 교통상황, 각 區 투자상담실의 위치와 연락처 등을 담은 투자가이드 지도를 제작했다. 2005년부터 상해市 외자유치위원회는 市 지도제작원과 함께 상해市 주요 개발구 지도를 제작해 포동신구(浦東新區)를 비롯한 14개 국책 개발구역과 15개 시책 개발구역을 투자자에게 소개해왔다. 이렇게 제작된 개발구(開發區) 지도가 각국 재(在)상해 영사관과 외국기업의 상해 사무소에 1만 부 이상 무료 배포돼 큰 환영을 받았다. 2006년에 새로 제작된 이 지도 2만 부 중 영문판이 1만 부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언어로 작성됐다. 주로 개발구(開發區)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던 2005년 지도가 외국 제조업 투자자를 위한 지도였다면 2006년 지도는 상해 서비스 산업의 투자자를 위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5년 지도에 소개된 개발구(開發區)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기재돼 있다. ([www.shghj.gov.cn](http://www.shghj.gov.cn))

# 디지털 도시

## 9. 주택공급 관리 솔루션 도입 (영국 더럼市)

영국 더럼市는 Northgate Information Solutions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민들에게 주택관련 정보를 공급하는 등 市에서 관리하는 주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5년간 90만 파운드(약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주택관련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택 구입 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노숙자 등 주택 공급이 필요한 주택복지 수요자 관리와 무선 인터넷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실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6342](http://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6342))

## 10. 유럽 최대 청소년 박람회 'YOU Berlin 2006' 개최 (베를린)

2006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5만 5000㎡의 베를린市 박람회 부지에서 스포츠, 패션, 음악, 댄스,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 청소년 박람회가 열렸다. 'YOU Berlin 2006'이라고 불리는 청소년 박람회는 1999년부터 매년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다. 주최측인 You-team 재단은 2006년에는 약 17만 명의 청소년이 박람회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했다. 청소년들은 박람회 기간에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쇼핑을 하거나 멀티미디어 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고, 스포츠를 즐기고,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다.



'YOU Berlin 2006' 포스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소형차 경주 등과 같은 X스포츠 대회, 2) 축구경기, 3) 음악전문채널 'VIVA' 공개방송, 4)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라는 모토로 각종 학습관련 사이트, 사전 관련 업체, 여가활용 사이트 등에 대한 소개와 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직업 등의 정보 제공, 학업과 진로 그리고 인턴 관련 주제로 학생과의 토론회 개최와 다양한 교육방안을 제시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 5) 영화상영, 6) 음악전문채널인 'VIVA'와 'DJ 댄스클럽'이 주관하는 2006년 댄스스타 경연대회, 7) 패션과 화장품 정보 제공, 광고모델 및 표지모델 선발대회와 각종 화장품 전시, 8) 최근 출시된 게임 플레이어, 핸드폰 등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9) Jetix Kid 상(범유럽 아동오락물 전문회사인 Jetix사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스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으로, 가수, 밴드, DVD, 게임, 청소년 영화, 축구선수, TV 스타, 장난감 부문별 후보자 중 인터넷 투표를 통해 최고 인기상 수상자(작)를 가림) 수여 등이다. 박람회 1일 입장료는 1인당 10유로(약 1만 2000원)이며, 단체(10인 이상)는 1인당 7유로(약 8400원)였다.

([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you/index.html](http://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you/index.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市도 현재 유스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민간 비영리단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 매년 열리는 서울市的 유스페스티벌을 베를린 청소년박람회처럼 서울市를 대표하는 청소년축제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007년 유스페스티벌의 경우 사업기획을 연초부터 시작해, 진로 탐색에서부터 문화, 오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울市 대표 청소년축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khee@sdi.re.kr)

## 11. 문화 관련 조직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런던)

런던은 주요 종교 14개 교단과 300여 종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아가는 도시다. 문화도시 런던을 이끌어가는 데 이와 같은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서 런던市가 주축이 되고 잉글랜드 예술원 런던지부(Arts Council England, London) 등이 협력하는 Gain 프로그램이 시범사업 2단계에 돌입했다. 참여할 준비가 된 인사만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인사를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문화관련 조직을 운영하는 지도자로 육성한다. 문화단체와 신진 문화지도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508](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508))

## 12. 청년실업자 지원사업 민간위탁 (일본 나라縣)

학교에 가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縣은 비영리법인 및 카운슬링 회사 등 4개 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었다. 해마다 니트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縣 내에서도 약 8000명에서 1만 1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縣은 니트족 대책으로 외부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계약을 맺은 단체는 지원금을 받아 카운슬링이나 취업 체험을 통해 니트족의 사회참여 기회를 돕는다. 縣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니트족 대책으로 770만 엔(약 6390만 원)을 예산에 포함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www.yomiuri.co.jp/e-japan/nara/news001.htm](http://www.yomiuri.co.jp/e-japan/nara/news001.htm))

## 도 시 환 경

## 13. 폐식용유를 이용한 시내버스 운영 (교토)

일본 교토시내 버스노선에서 차체에 '바이오 디젤 연료 100%'라고 적힌 2대의 버스가 2006년 5월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이 실험용 버스는 식용 폐유를 정제한 바이오 디젤 연료(BDF)만 사용한다. 계기는 1997년에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였다. "개최 도시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싶다. 폐기되는 튀김유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보자."고 하며 폐유 연료화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작된 가정의 튀김 폐유 회수 작업이 市 행정과 연계됐다. 연료품질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경제산업성은 시판 디젤 연료의 BDF 혼합률을 5% 이하로 억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토市는 100% BDF를 목표로 했다. 교토市 후시미(伏見)區에 1일 5000리터 처리 용량의 '폐식용유 연료화 시설'을 건설하고 쓰레기수거차량 220대를 100% BDF 연료로 운행하게 해서 그 실적을 근거로 市 버스 노선에도 투입했던 것이다. 교토시내 950개 거점에서 가정 및 음식점의 폐유를 회수해 연간 150만 리터의 BDF를 만들어 내고 있다. 폐유를 사용할 경우, 경유와 비교해 연간 4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향후 모든 市 버스를 100% BDF로 운행할 계획이다.

([www.yomiuri.co.jp/feature/kankyo/20060808ft0c.htm](http://www.yomiuri.co.jp/feature/kankyo/20060808ft0c.htm))

## 14. 에너지 절약 심사제도 실시 (북경)

중국 국무원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20만㎡ 이상의 중형 아파트 단지와 2만㎡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불합격시 착공할 수 없게 된다. 건설부는 또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공동으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고 북경市の 10대 에너지 낭비 건축물을 선정해 공시한다. 다른 도시들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미 '국무원 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 결정(国务院关于加强节能工作的决定)의 실행에 관



한 의견'을 통해 각 지역 건설회사들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계와 건축계획을 정부 유관부처에 보고해 에너지 절약 심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련 부처가 건축물 에너지 소모 심사 의견서를 발급해 준다. 이 의견서 없이는 도시계획부서가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www.bjd.com.cn/bjxw/sqms/200609/t20060929\_96488.htm)

## 도 시 교 통

### 15. 오토바이의 버스전용차로 주행 단속 강화 (시드니)

오토바이의 버스전용차로 주행에 따른 버스운행 지연과 안전사고 발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드니市가 22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오토바이의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 집중단속에 나섰다. 존 왓킨스 뉴사우스웨일스州 교통부장관은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가 일부 이기적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 주행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토바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주행할 경우, 231호주달러(약 16만 원)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 10. 8)

## 한 줄 뉴스

- 영국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 전원 경관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농가 개조 지침서 발간
- 영국 맨체스터市, 세계 최초로 맨체스터 스타디움에 풍력발전기 설치

### <런던>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베를린 등 유럽과 캐나다 5개 도시와 수소버스 상용화 협동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킹스크로스 유로스타역과 세인트 판크라스 유로스타역이 완성되면 약 150만 명의 관광객 증가 전망

### <베를린>

- 도시개발에 있어 성차별 철폐를 다룬 소책자 발간
- 2006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움직이는, 우리를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영상’이란 주제로 제16회 청소년 영화제 개최

## 16. 비만문제를 도시 및 건축 설계로 해결 (영국)

성인인구 4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조사돼 유럽 내에서 가장 비만문제가 심각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영국에서 비만문제를 도시 및 건축 설계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건축 및 환경 위원회(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2006년 10월 11일 발간된 보고서, 「Physical Activity and the Built Environment」에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런던의 건축, 도시 구조가 비만문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많이 걷고 자전거를 타기 쉽게 도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운동하기 쉽도록 샤워 시설을 갖추거나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산책하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방안 등이 제시됐다.

([www.cabe.org.uk/default.aspx?contentitemid=1534](http://www.cabe.org.uk/default.aspx?contentitemid=1534))

### >>> 전문가 검토의견

비만문제를 도시의 환경과 구조개선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예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비만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효과를 고려한다면 추진해 볼만하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나 이동이 가능하도록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면 비만문제 해결 및 운동부족으로 야기되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효과로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도시의 환경과 구조 개선책은 적극 도입해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은이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eyn@sdi.re.kr)

## 17. 이케부쿠로역(驛) 주변건물 외벽 색 규제 (동경)

이케부쿠로(池袋)역 주변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도시마(豊島)區는 건물 외벽의 색이나 성풍속가게(性風俗店) 진출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다. 위반시 벌칙 등의 강제력은 없지만 區의 권고에 의한 억제 효과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마區에 의하면 외벽 색을 지구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다고 한다. 역전 광장과 주변 주요 가로에 근접한 건물이나, 새롭게 건설하거나 외벽 색을 바꾸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외벽에 사용하는 색은 색의 선명함을 나타내는 일본공업규격(JIS) 지표인 '채도'가 8 이하(원색의 반정도의 선명함)가 되도록 정했다. 또한 대상지역에 성풍속가게나 마권 판매장이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 외에 무점포형 성풍속가게 등의 간판 광고를 금지하며 성인오락실이나 가라오케의 개업도 금지한다. 區는 향후 신축이나 외벽 도색 공사업체에게 지구계획의 내용을 설명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역 주변 뒷골목으로 지구계획의 대상지역을 확대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區 관계자는 “권고 밖에 하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는 있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 區의 현관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관을 지키고 싶다.”고 전했다.

([www.yomiuri.co.jp/homeguide/news/20060413hg02.htm](http://www.yomiuri.co.jp/homeguide/news/20060413hg02.htm))

##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의 도시경관은 낮과 밤이 상이하게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물론 빛의 효과를 통해서 밤에 나타낼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미적 경관을 제공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자극적인 선전광고로 오히려 경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의 현란한 광고판들은 건축물의 미관을 상승시키기보다 그 자체의 퇴폐적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도시경관에 문제가 있다. 현재 일부 자치區에서 유흥업소를 포함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 실행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승만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mbaek@sdi.re.kr)

## 18. 장애물 없는 계획 및 건설 (베를린)

베를린市는 장애인들의 '장애물 없는 일상생활'을 위한 건설정책을 추진한다. 도시개발부 산하에 '장애물 없는 건설을 위한 조정부서'를 두고 공공장소 및 공공건물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이 부서는 장애물 제거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제안하고 평가하는 한편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2006년에는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베를린의 장애물 없는 계획 및 건설」이라는 핸드북을 발간했고 2007년 초부터는 온라인에서 핸드북을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왼쪽: 보도 블록위의 도식, 중간: 문을 자동으로 열수 있는 버튼, 오른쪽: 도로위의 표시)

([www.stadtentwicklung.berlin.de/bauen/barrierefreies\\_bauen/index.s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bauen/barrierefreies_bauen/index.shtml))

## 19. 친환경주택 건설의 필요성 주장 (영국)

주택건설 2006 학술대회(Housebuilding 2006 Conference)에 참여한 영국 주택건설협회(Home Builders Federation)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건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친환경 건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규제하고 업계에서는 마지못해 따라하는 전형적인 순서를 뒤집어, 업계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선점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건축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환경성을 고려한 건축표준 개발을 주문했다.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596277.html](http://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596277.html))

([www.hbf.co.uk/index.php?id=1577&tx\\_ttnews\[tt\\_news\]=10021&tx\\_ttnews\[backPid\]=819&cHash=d6234feff4](http://www.hbf.co.uk/index.php?id=1577&tx_ttnews[tt_news]=10021&tx_ttnews[backPid]=819&cHash=d6234feff4))

## 20. 보행공간 조성을 위한 거리환경 디자인 지침 단일화 (런던)

영국 교통부(Transport for London)는 걷기를 장려하기 위해, 보행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런던 32개 구청의 가로표지판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해 거리환경 디자인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런던 32개 구청 대표들이 모여 협의하고 있다. 교통부의 재정지원 하에 런던의 리치몬드(Richmond), 사우스뱅크(South Bank), 웨스트엔드(the West End) 지역에서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계자는 시민친화적인 보행환경은, 보행자의 통행을 늘릴 뿐 아니라 이들 보행자가 카페에 들르고 상점에서 쇼핑도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Regeneration & Renewal, 2006. 10. 13)

### 한줄 뉴스

- 호주 교육산업이 연간 100억 호주달러(약 7조 3000억 원)의 수입을 올려 3대 수출산업으로 부상
  - 현재 유학생은 중국 8만 5000명, 인도 5만 5000명, 한국 3만 명을 포함해 총 34만 5000명
- 시드니市, 터널 지하수와 공원 우수를 활용해 연간 97만 메가리터(1메가리터: 100만 리터)를 공공시설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예정
- 동경都 스기나미區, 2007년부터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에 자녀양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양육 지원권' 발행키로
- 상해市, 도시경관 해치는 전선연결식 전기버스 대신 충전식 전기버스 도입키로

### <북경>

- 첨단기술 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2006년 북경市 4대 중점발전영역의 인재육성계획'(2006年度北京四大重点发展领域人才开发目录) 발표
  - 현대식 제조업, 금융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현대식 농업 등 4대 영역 100개 전문분야
- 2008년까지 시민의 문화예술공연 관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10개 노천극장 건설 계획 수립
- 2006년 10월 15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엔젤' 행사 개최

## 21. 재해에 대비 빗물을 지하에 저수 (동경都 스미다區)

동경都 스미다(墨田)區 무코지마(向島) 지구에는 길가 곳곳에 우물용 수동 펌프가 있다. 이 펌프는 지하 탱크에 모아 둔 빗물을 펴 올리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는 주민이 정원 물주기에 사용하지만 재해시의 방화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區가 설치한 것이다. 이 지역은 화재발생에 대비해 소화전을 설치해 수도관에 연결하려 했으나, 지반이 약하고 대지진시 수도관이 파손되고 소화전이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1995년부터 區는 탱크 설치 지원 제도를 만들었고 용량 1000리터 미만의 탱크의 경우에는 본체 가격의 반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4년도까지 201건, 1850만 엔(1억 5300만 원)을 보조했다. 또한 1000m<sup>3</sup>를 넘는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빗물 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2003년에는 대상을 500m<sup>3</sup> 이상으로 넓힌 결과, 2005년 말 현재 공공시설이나 오피스 빌딩 등 구내 64개 시설에 합계 약 1만 톤에 이르는 빗물 탱크가 있다. 절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區 본청사의 경우 2004년도에 화장실에서 사용된 물 약 1만 2100톤 중 약 39%를 빗물로 조달했다고 한다. 전국 11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된 '빗물이용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연학회'에 의하면, 나가노(長野)市는 탱크 본체 가격의 반액을 보조하고 니가타(新潟)시는 탱크 1기당 1만 엔(약 8만 3000원)을 지급하는 등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www.yomiuri.co.jp/e-japan/challenge/ci\\_ch\\_06030901.htm](http://www.yomiuri.co.jp/e-japan/challenge/ci_ch_06030901.htm))